

지상 법석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아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교묘히 하여 그 근본을 알아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교묘히 알아서 이렇게 쉽게 하는 공부 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경을 많이 배 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교묘히 알아 서 마음을 바라보라니 이처럼 쉬운 공 부가 어디 또 있었습니까.

뿌리까지 보는 공부

그러나 이 공부는 대단히 어려운 공 부입니다. 알아 있지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는 공부이며 교묘히 사관법적 마 구니의 방해물 물리치는 공부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보지 않고 그 뿌리까지 뽑아 보는 공부인 데 겉에서 보는 법부 의 눈에 비추듯 그렇게 쉬운 깨달이 있 겠습니까. 참선은 근본을 파고 들어 가서 그 근 본의 뿌리를 알아 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디서 왔느냐 그 근본을 알아 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알아 보는 이 공부를 참선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알았다면 곧 그것을 부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말해 자기가 부처임을 알아내는

디 갈 때나 항상 교묘히 근본이 무엇인 가를 사유하십시오. 그러면 알아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만 가리켰지 길가는 것은 자기가 가는 것 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을 교묘히하 여 자꾸자꾸 멀리멀리 가아 합니다. 부 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향해 뒤돌 아 보지 말고 자꾸자꾸 나아 가라 말입 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합니다. 홀로 가는 길은 자칫 비탈어진 곳으로 갈 수도 있으므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면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은 스 승일 수도 있고 도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식을 찾아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선지식은 먼저 깨달아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보통 친견 한다고 하는 말을 쓰는 데 선지식을 찾 아 가는 의논해 묻는 것이 친견입니다. 선지식은 어떻게 공부했으며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지에 계 시는지를 들어 나의 공부에 도움을 받 는 것은 진리의 길을 빨리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마음을 닦고 또 부처님께 선지식의 이야기에

참선은 근본을 파고 들 어 가서 그 근본의 뿌리 를 알아 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디서 왔느냐. 그 근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알아 보는 이 공 부를 참선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알았다면 곧 그 것을 부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말해 자기가 부처임을 알아내 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수행의 대의요 기초입 니다.

처의 가르침을 자기화하려는 노력을 끝 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가, 역사가, 또 무슨 기술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 딸이 많이도, 돈이 많이도, 벼슬이 높아 도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면 한낱 범부의 삶 을 벗어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나도 죽는다'는 생각을 얼마 나 자주 하십니까. 나는 안죽는다. 영 원히 산다고 우겨낼 사람은 없을 것입 니다. 10년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이 다르듯이 10년후의 모습 또한 다를 것입니 다. 변하고 또 변해가서 결국에는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빨리 죽고 늦게 죽는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갈 것 인가, 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이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업을 따라 갑니다.

죽은 뒤에 가는 곳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분 이 있습니까. 서쪽에 있지요. 동쪽이 아 니라 서쪽에 극락세계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극락이 서쪽에

번뇌망상은 스스로 만든 썸의 쇠사슬 선지식을 찾는것도 공부의 좋은 방법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수행의 대의요 기초입니 다. 자신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망상을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죄를 만들어 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 을 누가 안겨다 준 것은 아니라 자기입 니다. 자신이 누구냐하는 문제는 실로 중요 한 것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부처인 자 신이 왜 이 범부의 삶에 얽매어 있는나 를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달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번뇌와 망상의 쇠사슬을 묶어 범부의 삶에 얽 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이란 결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을 알고 나 면 모든 것이 환해 집니다. 그러니까 대 중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처하고 어

귀를 가물이다 보면 진리의 묘체, 내가 무엇인가하는 고민이 확연히 해결된다 는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 와 소림굴에서 9년간 면벽과선을 했습 니다. 그것도 부처님을 등지고서 참선 을 했는 데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달마대사가 등진 것은 부처님이 아니 고 부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이었습니 다. 부처님과 그 말씀을 등지는 까닭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또 달마대사는 열반에 들어 철관에 넣어져서 못혔는 데 그는 철관을 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법력이 놀랍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놀라야 할 사실 은 대사가 신발 한쪽을 철관에 놓아두 었다는 것입니다. 왜 신발 한쪽은 들고 나오고 한쪽은 남겨 놓았을까요. 왜 그 렇게 했겠습니까. 대사가 열반한 뒤 3

년후에 해체해 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시신은 없고 신발하나만 덩그 라니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사 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달마대사의 행적을 그 자체가 무량 한 설법입니다. 그 행적들의 의미를 찬 찬히 들여다 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됩 니다. 조사의 뜻을 알아내는 것은 간화 선으로써 가능합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거나 자신의 마음자리 를 들여다 보면 달마의 행적이 갖는 의미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발 한쪽을 남겨 놓은 달마의 마음과 그 의미를 추구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진리의 실상은 저절로 알게 됩니 다. 사유하는 자세 참선하는 삶을 유지 해 나가며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고 부

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자꾸 자꾸 서쪽으로 나아가세요. 참선을 하는 사 람은 부처님께서 '천상천하'라 하셨으 니가 하늘을 쳐다볼 때는 높게 높게 보 고 땅을 볼 때는 깊게 깊게 사방을 볼 때는 멀리 멀리 보아야 합니다. 그런 큰 마음으로 '이 뒷포'하며 참선을 해 야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쪽으로 훨훨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겠거니와 마음을 닦으면 불법 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부터 알아야 합 니다. 이 산승이 즐근 불법이 무엇이나 를 말했으니까 이제 여러분께 불법이 뭔가를 답변해 드려야 겠군요. 자, 잘 들으세요. 내 말을 잘 들으시 요. "무엇이 불법의 교묘하고 교묘한 큰 바퀴냐 안동소주에는 40도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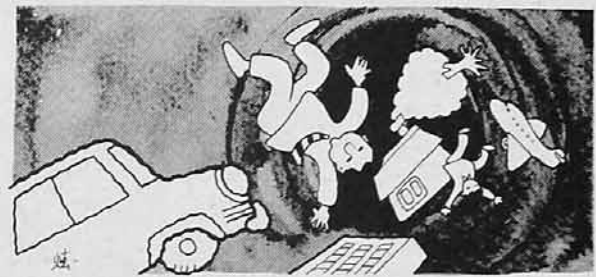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블랙홀

김성규

모든 물리법칙이 무력해지고 시간과 공간마저 사라져 버린 또 하나의 우주, 우주는 어찌하면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블랙홀(검은구멍)이란 낱말은 1969년 미국 과학자 존 휠러가 2백년 전에 언급된 아이 디어를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지어낸 말 이다.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인간의 생활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면서도 상상과 동경의 대상이었던 빛에 관해서는 두가 지 이론이 있었다. 하나는 뉴턴이 지지했던 빛의 입자설이고, 다른 하나는 빛의 파동설이 다. 오늘날 우리는 두 주장이 모두 옳다는 것 을 알고 있다. 양자역학에서 빛은 파동의 성 질도 가지고 있으며,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짐으로 빛의 입자 파동 이중성이 입증되었다. 빛을 파동으로 이해했을때 빛이 중력에 대 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

발은 안정된 상태가 되어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主). 마침내 빛은 수소나 기타 핵연료가 고갈되기에 이른(增). 모순된 말 같지만 별 의 팽창(핵연료)은 팽창수록 더 빨리 바다인 다. 빛이 무거울수록 중력을 지탱하기 위해 서는 더 뜨거워야 하고, 뜨거울수록 더 빨리 팽창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별의 팽창이 고갈 되면 빛은 냉각되기 시작하고 따라서 수축하 게 된다. 빛이 수축함에 따라 표면의 중력장은 매우 강해져서 빛마저도 벗어날 수 없고 모든 것이 중력에 끌려 되돌아 온다(블랙홀). 빛을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측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사건의 집합인 사공간의 구역 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블랙홀이 다. 눈에 보이는 별과 보이지 않는 블랙홀이 서로의 궤도를 틀게 되면 눈에 보이는 초대형 의 별도 그대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된 다. 백조와 X-1의 발견 후 은하계 안에는 백 여개의 블랙홀이 발견되었다. 결국 별의 일생



죽음과 같은상태... 새로운 시작의 근원

지 않았다. 그러나 빛이 입자로 되었다면 빛 도 포탄이나 핵성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을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은 빛의 입자가 무한히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력이 빛의 속도를 감속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후 빛이 유한한 속도 를 갖고 있다는 피에의 발견은 중력이 빛에 중요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 였다. 이러한 가정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존 미첼은 1783년에 (런던 왕립협회 월하 보고서)에서 별의 질량이 매우 크고 조밀하다면 중 력장이 커서 빛이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 라고 예언하였다. 이것과 비슷한 제안을 수 년후에 프랑스의 과학자 라플라스도 발표하였다.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별의 일생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 별은 엄청난 양의 수소가스가 자체의 중력으로 스스로 수축할 때 형성된다. 수축할수록 기체 의 분자는 더욱 빈번하게 빠른 속도로 부딪치 면서 기체가 뜨거워진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 면 기체가 너무 뜨거워서 수소(H)원자가 중 돌할 때 서로 뭉쳐나가는 대신 서로 붙어서 헬륨(He)을 만들게 된다(成). 마치 통제된 수 소폭탄의 폭발과 같은 이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이 빛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 열은 기체 의 압력을 높여서 중력과 균형을 이루고 기체 는 수축을 멈춘다. 원자핵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이 시간이 지나 중력과 균형을 이루게 되는

은 수소가스로 시작하여 계속 연소하여 밀도 가 큰 가스로 바뀌는 생명순환을 거치면서 진 화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여는 블랙홀로 된다. 우리의 생명은 부모의 몸을 받아 태어나 자 기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살다가 인연이 다 하면 흩어져 죽는다.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처럼 죽음은 새로 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윤회 하면서 계속된다면 이 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다음생에 또 문제로 남아 있게되며 언젠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문제에서 벗 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생에 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인 것이다. 우리가 저금통장에 10만원을 저금해 놓고 몇 년 후에 통장을 정리해 보면 원금 10만원에 몇 만원의 이자가 함께 들어 있듯이,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생에서 노력하고 애는 만큼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조건 속에서 그 만큼 더 승천된 성품으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블랙홀처럼 끊임없 이 되풀이 한다면 어찌 이 귀한 생을 육신 이 나 즐겁게 해주면서 헛되이 보내겠는가! 불자들이여! 열심히 수행 정진하자. 건강한 삶의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하고 성실 한 사회를 만들기 마련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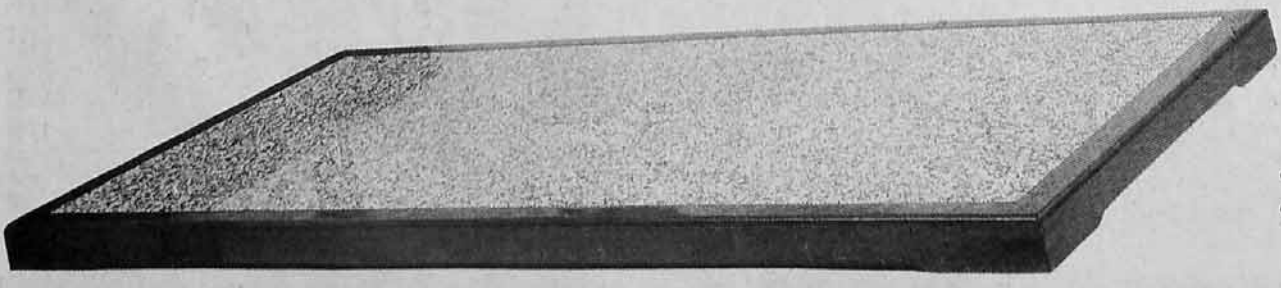
이유없이 아프거나 되는일이 없거든 수맥을 막아라!! 현대인의 질병, 그 큰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은 과학입니다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 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적외선 온돌침대(파워스톤)은 이러한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숙면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돌침질기 입니다.

임상실험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대전대학교·원광대학교 양 부속 한방병원의 임상실험 결과가 효과를 입증합니다.
-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이삭 파워스톤은 원적외선을 이용한 찜질효과로
-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 통증의 경감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 신경통·류머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뇌·대하중·산후조리·불면증·교통사고후유증 등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 피로회복·비만·미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 문의하시는 분께 임상실험자료와 수맥관련 책자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규격) : 200×104×8
200×138×80

• 실용신안등록 : 제068614호
• 상표등록 : 제245216호
판매원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인류의 건강을 추구하는
이삭産業株式會社
* 전기용품 O마크획득 · 전자파 장해 시험필
EMC
EMC
EMC